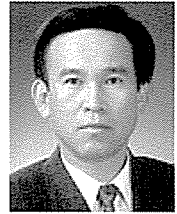


## 고령사회에 대비, 청년 연장해야



이광호 : KBS 해설위원

최근 직장인의 조기 퇴직 열풍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40대 직장인들은 요즘 좌불안석이다. 직장내 분위기가 50대를 넘기면 그만둬야 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사오정(45세가 정년)이니 오륙도(56세까지 회사에 남아 있으면 도둑놈)니 하는 자조적인 농담들을 서로 하지만 속으로는 씁쓸할 뿐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창업에 관심을 두고 있지만 그리 쉽지만은 않다.

우리 나라의 평균 정년 나이는 55세지만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의해 60세 이상의 정년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IMF 경제위기 이후 구조조정이 상시화되면서 40대 후반 명에 퇴직과 조기 퇴직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40대 후반에 노동시장에서 퇴장당하면 다시 진입하기 어려워 결국 실망 실업자로 있다가 노동시장에서 영원히 퇴장하게 되는 것이 하나의 현실이다.

인구학에서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일 때 고령화 사회라고 하고 14% 이상일 때 고령사회라고 부른다. 우리 사회는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2001년 현재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에서 7.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선진국의 평균 고령인구 비율 14.4%보다 아직 낮은 수치지만 2019년에는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경제성

장 속도가 눈부시게 빨랐던 것처럼 인구구성도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를 거쳐 고령사회로 이동하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이다.

직장인 '조로(早老)현상'은 우리사회의 고령화 추세와 상충된다는데 문제가 있다. 밀려난 직장인들은 길게는 30년을 뚜렷한 소득없이 살아 나가야 한다. 게다가 40대 후반이나 50대는 실제로 자녀 교육비와 혼수비 등 돈이 가장 많이 드는 시기이다.

### 조기 퇴직자 우울증 많다

일자리를 떠난 4-50대들이 퇴직 후 후유증으로 우울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강제 퇴직을 당한 분에 못이겨 가족들에게 화풀이를 하는 사람, 가족과의 대화 자체를 단절하고 정신적 공황에 빠진 사람, 혹시 아는 사람이라도 만날까봐 외출이 두렵다며 대인기피증에 빠진 사람, 아내와 자식들도 돈 못버는 가장에게 냉담해져 심한 불면증과 심리적 공황에 시달리는 사람 등 퇴직후 스트레스를 겪고있는 퇴직자들은 병원을 찾아 상담을 하고 있다.

퇴직자들이 퇴직후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등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족들의 관심이 중요하고 본인 스스로도 돈을 벌지 않더라도 무엇인가 일자리

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정신과 전문의들은 조언한다. 또 과거의 직책이나 하던 일에 대한 생각은 잊어버리고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철저하게 파악해 시간제 아르바이트라도 하면서 현실과 계속 접촉하며 퇴직 전 생활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 영국 70세 정년퇴직제 도입

외국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정년을 연장해 나가고 있다. 일본은 1991년 이후부터 60세 정년제를 확보했으며 지금은 65세 정년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을 하면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연기분 만큼 수령액을 늘리는 방안을 도입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정년 나이를 넘어 고령자가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정년제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올들어 근로자들의 의무 근로 기간을 70세로 규정한 새로운 정년 퇴직제 도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영국 근로자들은 앞으로 70세까지 의무적으로 일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연금 수령액이 대폭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에서는 지금까지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정년 퇴직제를 운영해 왔으며 60세 퇴직이 보통이었다. 이같은 정년 연장안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위기에 빠진 연금제도를 살리기 위한 교육지책으로 보인다.

우리 나라는 삼국시대 이래로 70 치사(致仕) 곧 정년이 70세였으며 치사 후에도 원하면 반록(半祿) 곧 감봉으로 일하게 하거나 고되지 않고 명예는 유지되는 노인직 향직(鄉職)을 주어왔다.



### 50대 실업 심각한 사회문제

이처럼 50대 실업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 가정이 무너져 내리는 현실은 더 이상 내버려 둘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평균 수명은 70대 중반으로 크게 늘어나는데 비해 직장인들의 정년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가 안고있는 구조적 모순이다. 한창 일할 나이에 실직자가 된다는 것은 국가적인 자원낭비이기도 하다.

이같은 모순을 해결하려면 기존 고용방식을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임금이 줄어드는 '임금피크제'의 도입도 고려해 볼만하다. 정부는 퇴직자들의 재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재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일할 수 있는 퇴직자들에게 적절한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것도 정부의 몫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고령화 사회에 발맞춰 정년을 연장하고 연령차별 금지를 좀 더 강력하게 입법화해야 할 것이다. [Z]